

보도시점 2023. 12. 26.(화) 배포 2023. 12. 26.(화) 11:00

[2023년 질병관리청 정책 돋보기]

질병관리청, 철저한 위기관리로 사망·중증환자 없이 국내 엠폭스 억제, 앞으로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 가능

- 국내 누적 엠폭스 환자 155명, 환자 지속감소 추세로 현재 중증환자 없음
- 2→3급 감염병으로 하향,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진료 편의성 증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해 6월 국내 엠폭스 첫 발생 이후 적극적인 대응으로 현재 상황이 안정화되었으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엠폭스 국내 누적 확진환자는 총 155명으로, 지난 4월 42명, 5월 48명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12월 현재 보고된 확진자는 없다.

* 4월 42명 → 5월 48명 → 6월 22명 → 7월 12명 → 8월 9명 → 9월 10명 → 10월 5명 → 11월 2명 → 12월 0명

올해 아시아 지역 내 태국, 대만, 일본 등에서 엠폭스 유행 및 사망사례가 보고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예방활동, 환자 관리 등 철저한 대응을 통해 사망이나 접촉자 추가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이 이용했거나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약 2만 4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과 함께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속 정확하게 엠폭스 발생 현황을 전달**하여 불안감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 주요증상, 임상경과, 감염경로 등 맞춤형 예방수칙 제작·배포 14건(리플릿 등)

** 보도참고자료 40회 배포 및 질병청 누리집 정보 제공(당부사항, 확진자 특성 등)

더불어 그간 확인 된 엠폭스 감염특성 및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상진료지침 및 교육자료를 현장에 배포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 9월 6일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여,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환자들의 진료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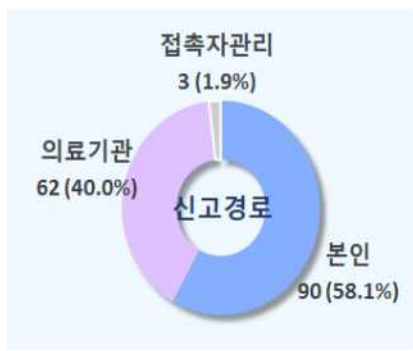
* 대다수 경증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 기반 검사 치료하고, 중증환자 입원치료는 계속 지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준 지자체, 의료계에 감사를 전하며, 아직 엠폭스가 산발적이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오염된 부위 접촉금지등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한 진료, 필요시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엠폭스 국내 확진 환자 특성 (2023. 12. 26. 0시 기준)

담당 부서	감염병위기대응국	책임자	과 장	여상구 (043-719-9100)
<총괄>	신종감염병대응과	담당자	연구관	이수연 (043-719-9130)
			연구사	박용준 (043-719-9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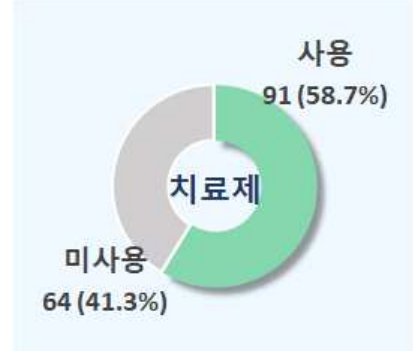
※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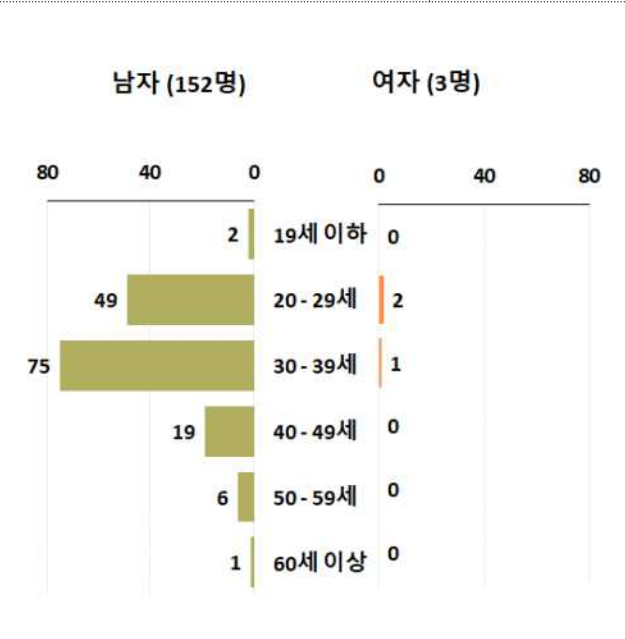
<그림 1. 신고경로>



<그림 2. 추정감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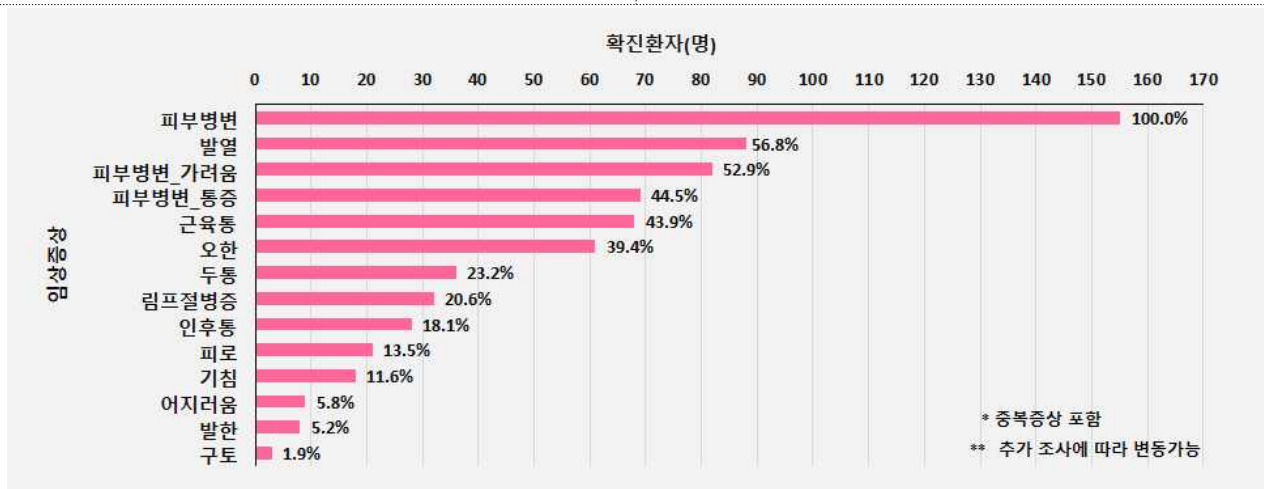
<그림 3. 테코비리마트 사용 현황>



<그림 4. 성별 및 연령 현황>



<그림 5. 시도별 발생현황>



<그림 6. 임상증상>

□ 발생

구분	계	'22년	'23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확진 환자(명)	155	4	1	42	48	22	12	9	10	5	2	0

□ 성별, 국적, 연령대

구분	계	국적		성별		연령대					
		내국인	외국인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확진 환자(명)	155	140	15	152	3	2	51	76	19	6	1

□ 지역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확진 환자(명)	155	88	6	4	8	1	0	0	2	28	2	3	1	1	1	4

□ 인지경로

구분	계	본인 신고	의료기관 신고	밀접접촉자*	비고
확진 환자(명)	155	90	62	3	0

* 확진환자 역학조사 중 확인된 접촉자를 선제적으로 검사

□ 추정 감염경로

구분	계	지역		접촉 경로		
		국내 감염	해외 유입	성 접촉	의료 노출	기타*
확진 환자(명)	155	143	12	140	1	14

* 진술 거부 및 역학 조사 중인 사례